

그 첫 계기로서 그리스인들과 유다인 사이에 종족분쟁이 일어났을 때 로마정권은 그리스인들 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항하는 유다인에게 로마군은 무자비했다. 특히 A.D. 66년 5월에만도 예루살렘에서 천민들이 반로마시위를 계속했다. 결국 봉기운동이 거세지자 로마는 ‘티투스’를 사령관으로 하여 6만의 군대를 파견했는데, 우선 갈릴래아 지방을 겨냥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 지방이 민중봉기의 거점이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갈릴래아의 ‘의병’들은 로마군의 무력에 밀려서 유다 지방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관청에 있는 채무장부부터 불태워버렸다는 것을 보아 저들은 경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예속되었으며, 저들의 봉기의 중요한 동기가 경제적 생존권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A.D. 70년 8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저항자들은 체포되어 사실상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하는 사태를 맞았다.

젤롯당의 일부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도처에서 산발적으로 전투를 벌였는데, 그 일부는 저 유명한, 헤로데에 의해 세워진 요새인 마사다에 집결해 싸우다 모두 자결했으며 일부는 예집트로 망명해 계속 싸웠는데, A.D. 132~135년에 바르 코흐바(Bar-Kochba)가 거느리는 한 패가 최후 한 사람까지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젤롯당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영영 사라졌다.

7. 예수의 민중운동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의 민중운동이 등장했다. 예수 자신의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윤곽은 알고 있으니까 긴 이야기

는 안 하겠고 여기서서는 예수의 민중운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치중 하겠다.

위에서 민중운동의 여러 형태를 소개하는 중에 특히 젤롯당에 치중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젤롯당과 같이 예수의 민중운동의 계기가 정치적이었다는 것이다. 마르코는 이 점을 강조하여 세례자 요한이 체포된 때와 예수의 민중운동의 시작을 결부시킨다(마르 1, 14). 또 젤롯당이 그렇게 많이 정치범으로(십자가형) 처형되었듯이 예수도 그러했다.

둘째는 젤롯당과 같이 예수의 민중운동의 중심이 갈릴래아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저들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상호영향이 없을 수 없다.

셋째는 민중이야기인 복음서에 예수의 민중운동과 상통합직한 예세네파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제자 중에는 젤롯당 출신이라고 명기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쩌면 베드로나 가리옷 사람 유다마저도 그 당에 속했던 자들이거나 적어도 동조자였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예수가 정치범으로 처형된 것이 젤롯당과 어떤 함수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기록대로라면 예수는 ‘강도’들과 함께 처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들은 젤롯당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로마에게 저들과 예수는 같은 계보로 보였을 수 있다.

다음에 여겨하는 예수의 민중운동의 성격은 젤롯당과의 차이점을 고려해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특성을 집약하는 것이 된다.

첫째, 예수의 민중운동에서는 십자가처형사건을 제외하면 대로마 투쟁을 나타낸 데가 거의 없다. 단지 게라사의 한 정신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마르 5, 1~20)에서 반로마의 우회적인 표현이 있고, 마르코 10장 42절에 이방의 통치자에 대한 짧은 비판적 발언이 있는

데, 둘 다 직접 로마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로마제국의 존재마저 모르는 듯이 행동했다고 한다. 그의 추종자들도 유다의 최후전쟁이 일어나 온 민중이 합세하여 이에 대결할 때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팔레스틴을 떠난 사실은 로마와의 전투적 투쟁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둘째, 마태오복음서의 한두 곳을 제외하면 예수가 민족주의를 내세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첫 복음서인 마르코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그 당시에 전체 민족운동가들이 하나같이 선망의 대상으로 내세운 다윗왕조와 관련시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다윗왕조와 메시아의 관련성을 극명하게 거부하고 있다(마르 12, 32/병행).

셋째, 예수의 민중운동은 에세네파나 심지어 세례자 요한과같이 금욕적이거나 은둔적이지 않았으며, 반면에 켈롯당과 같이 폭력에 호소하려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산상수훈의 교훈을 빼더라도 그의 운동이 폭력에 의존하기 위해 추종자들을 훈련하려 한 흔적은 전혀 없다. 마태오복음에는 예수를 체포하려 온 폭도들에게 칼을 쓰는 제자들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예수의 말이 전해져 있는데, 그 뜻을 살린다면 제자에게 준 말이기 전에 폭력에 의존한, 그리고 로마제국을 위시하여 무력에 의존한 권력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그러나 예수는 기존체제가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종말론을 신념으로 하고 있었다. 종말론은 당시의 모든 운동권에 파급되어 모두 종말론에 민족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데 반해, 예수는 하느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하나의 세계를 대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의 직계제자들에게서마저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하나의 세계인 하느님의 나라가 당시에 유포되고 있는 피안적, 묵시적인 환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실

적으로 역사 안에 실현된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참여하려는 자는 그것을 대망할 뿐 아니라 그 나라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다섯째, 새 나라 건설(하느님의 나라)을 위한 운동이 바로 그의 민중운동이었다. 그의 민중에 대한 행태가 바로 도래할 새 나라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기존체제에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예수의 민중운동의 거점은 갈릴래아였으나 마지막 단계에는 흡사 유다전쟁의 젤롯당의 전투 경력처럼 민중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진했다. 이것은 당시의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든 순례의 성격과는 다르다. 그 길이 죽음은 각오한 길이였음을 복음서들이 한결같이 서술하는데, 이것을 반증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행동으로, 말로 저주했는데 복음서의 서술은 하시딤이나 에세네의 대성전 자세와 과히 틀리지 않는 숙청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그의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의 부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 하는 예언이 반드시 유다전쟁 이후에 일어난 성전파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는 달리 반예루살렘 내지 성전에 대한 그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역대의 침략자와 결탁해서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던 상징, 로마와 결탁해서 성전 안에 로마황제의 신단을 설치하고 로마에 아부하면서 종교귀족들의 은행 구실을 한 그 따위 성전, 더군다나 역사의 앞에 해방의 행렬에 앞장선 신인 야훼(법궤)를 사실상 연금하고 다윗왕조의 이데올로기로 삼아버린 이 따위 교권의 상징을 예수가 묵과했으리라고 보는 것은 그의 철저한 반체제적 행태와 일치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가 종교귀족과 로마제국의 야합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실도 이같은 예

수의 대성전 태도, 행태를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8. 맺는 말

가장 격렬했던 젤롯당의 민중운동도 예루살렘 함락과 더불어 그 중추가 꺾이고 마사다의 이른바 죽음의 항쟁(72년) 그리고 바르 코흐바 일당의 최후의 산화(A.D. 135년)를 끝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평화주의를 표명하고 내일을 위해 극기운동을 펴던 에세네파도 유다 전쟁 마지막 단계에 이에 가담하여 몰살하고 말았다. 그리고 남은 민중운동으로는 전승국인 로마에 아부하여 생존을 유지한 바리사이파와 예수의 민중운동이었다.

이후 바리사이파가 ‘암니아’학파를 세우고 구약의 경전화 작업에 몰두하여 유다 민족의 결속을 도모한 데 대하여, 예수의 민중은 배타적 유다 민족주의에서 탈출하여 온 세계를 그들의 무대로 삼아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이념을 정립하고 이르는 곳마다 새로운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 유럽 마침내는 그때 당시 세계의 심장부로 알려졌던 로마에까지 진입해서 마침내 그 로마를 무력을 통하지 않고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후대에 와서는 로마를 점령한 그리스도교가 천년 암흑시대를 만든 장본인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민중운동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출발해서 세계에 퍼져나간 유일한 집단이 되었다.

이상에서 오늘과 같은 독재정권 아래서 민중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 1987년 5월 N.C.C.인권위원회 주최 모임 주제강연.